

기술분석보고서 건강관리

제놀루션(22522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작성자 주예령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놀루션(225220)

RNA 기술 하나로 진단과 그린바이오를 잇는 분자생명과학 플랫폼 기업

기업정보(2026.07.24 기준)

대표자	김기욱,김민이
설립일자	2006.02
상장일자	2020.07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주요제품	핵산추출기기,시약, RNAi 사업 등

시세정보(2026.07.24 기준)

현재가(원)	1,304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50
발행주식수	19,190,021
52주 최고가(원)	2,830
52주 최저가(원)	957
외국인지분율	1.87
주요주주	김기욱,김민이

■ 핵산추출 자동화 플랫폼의 선도 기업

제놀루션(이하, 동사)은 2006년 2월 설립되어 2020년 코스닥 기술성장 기업으로 상장한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인체 유래 시료로부터 핵산(DNA/RNA)을 자동 추출하는 Nextractor® 시리즈 장비와 전용 추출 시약을 핵심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독자 개발한 마그네틱 비드 기반 추출 기술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처리 속도와 비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외 대형 병원·수탁검사기관·정부기관 및 50개국 이상의 대학·연구소·기업에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동사는 미국 FDA·유럽 CE·한국 식약처 신고를 완료한 복수의 장비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 학회(ADLM·MEDICA·MedLab 등) 참가를 통해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RNA 간섭(RNAi) 기술 기반의 그린바이오 사업 확장

동사는 창업 초기부터 축적해 온 dsRNA 기술을 기반으로 그린바이오 분야로 확장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2024년 6월 세계 최초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 '허니가드-R액'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는 RNA 간섭(RNAi) 기술이 야외 임상시험을 거쳐 동물용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세계 최초 사례로, 이를 기점으로 꿀벌 노제마병 동물용의약품·꿀벌 응애 방제제·dsRNA 기반 작물보호제 등 다양한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 중이다.

■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사업 기반 강화

동사는 서울 마곡 본사 외에 인천 송도에 제2사옥을 준공하여 분자진단·정밀의료 연구와 RNA·그린바이오 연구를 이원화한 R&D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6년에는 일본 현지 파트너사 프라임테크와 NX-Duo의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시아 시장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5개 연구 개발팀으로 구성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IP 확보 및 개발 파이프라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과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공공 조달 채널 및 정부지원 기반도 안정적으로 강화 중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97.6	-74.37	-70.9	-72.65	-55.5	-56.86	-6.05	-4.87	29.41	-288	4,843	N/A	0.79
2024	71.4	-26.90	-91.6	-128.42	-72.1	-101.02	-8.14	-6.56	32.41	-356	4,447	N/A	0.50
2025	94.0	31.79	-86.4	-91.89	-125.9	-133.87	-15.66	-12.57	38.17	-607	3,786	N/A	0.50

기업경쟁력

핵산추출 플랫폼 독자 기술

- 마그네틱 비드 기반 자체 원료 기술(특허 10-2170388 등)을 보유하여 핵심 원재료 내재화 및 원가 경쟁력 확보
- NX-Junior부터 NX-Duo, Geno-Xtreme까지 용도별 풀라인업 구축 — 소규모 연구실~대량 검사센터 대응
- 15~30분 내 1~96샘플 동시 처리 — 글로벌 경쟁사 대비 차별화 요소

멀티플랫폼·멀티도메인 사업 구조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연구로 세계 최초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RNAi 기술 기반 유전자 치료제 '허니가드-R액' 품목허가 획득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 공공 조달 채널을 통한 안정적 초기 매출 기반 확보
- dsRNA kg 단위 대량 합성 인프라 구축 — 동물용의약품 상업화 및 농업 작물보호제 양산 대응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Nextractor® NX-Duo

- 대용량 샘플 24개 / 대량 샘플 96개를 30분 내 동시 처리 자동화 핵산추출 시스템.
- FDA-CE-식약처 신고 완료, 미국 CLIA Lab 진출, 일본 독점 유통 계약 체결.



허니가드-R액

- RNAi 기술 기반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세계 최초 동물용의약품.
- 2024.06 농림축산검역본부 품목허가, 2026.03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시장경쟁력

글로벌 핵산추출·정제 시장 성장성

- 2025년 6,046.6백만 달러 → 2033년 12,843.6백만 달러, CAGR 10.1%

국내 시장 집중도 및 B2G 채널

- 2033년 국내 시장 206.4백만 달러, CAGR 10.2%.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기관 납품 채널 선점.

RNAi 그린바이오 선점 포지션

- 세계 최초 RNAi 동물용의약품 허가 기반 독점적 지위.
- 꿀벌 노제마병·꿀벌 응애·작물보호제 파이프라인으로 친환경 농업 선점.

I.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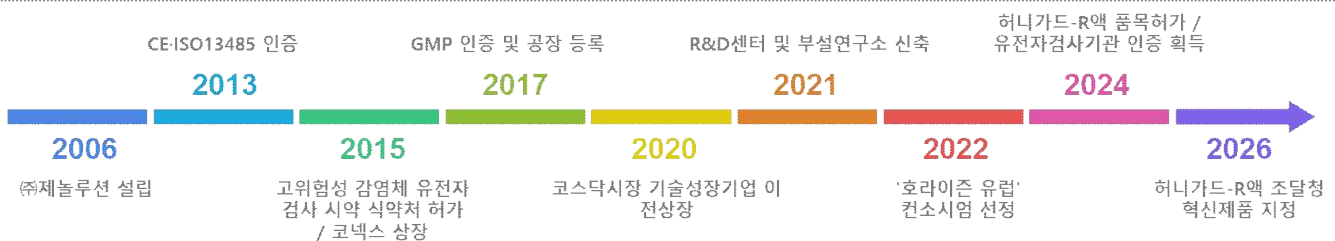
핵산추출 자동화와 RNAi 그린바이오를 양축으로 성장하는 분자진단 전문기업

동사는 독자 개발한 Nextractor® 핵산추출 플랫폼으로 전 세계 검사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한편, 세계 최초 RNA 간섭 기술 기반 동물용의약품 허니가드-R액을 보유하여 그린바이오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2024년 송도 제2사옥 완공으로 연구·생산 인프라를 이원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2006년 2월 설립 후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CE·ISO13485 인증 취득 및 핵산 추출 시약·장비의 식약처 신고를 완료하며 체외진단 시장에 진입하였다. 2015년 코넥스 상장, 2017년 GMP 인증을 거쳐 2020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으로 이전상장하였으며, 2021년 마곡 R&D센터 신축과 함께 금탑산업훈장·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수출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2년 EU 호라이즌 유럽 컨소시엄 선정을 통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에 편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허니가드-R액 품목허가, 송도 제2사옥 완공,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을 연이어 달성하였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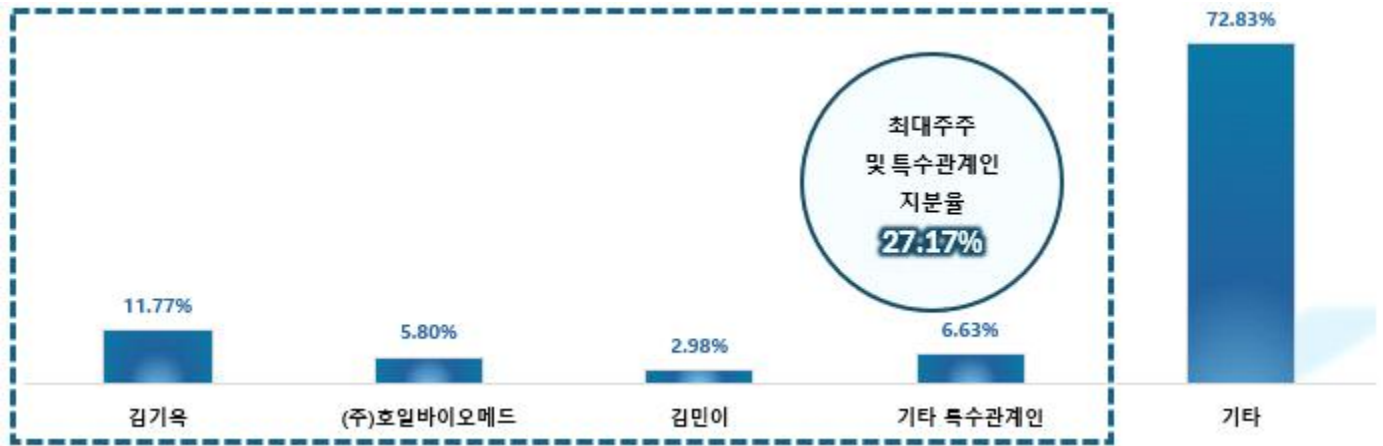
동사는 김기욱, 김민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기욱 대표이사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주)호일바이오테드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의료기기 도매 및 바이오 산업에서 약 25년간 경영 경험을 축적한 후 2006년 동사 설립을 주도하여 현재까지 최고경영자로서 사업 방향을 총괄하고 있다. 김민이 대표이사는 예일대학교 분자세포발생생물학 박사, Harvard University BIDMC 연구원, 삼성바이오에피스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국내외 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풍부한 연구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핵심 R&D 전략 수립 및 기술 고도화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대표의 경영·연구 역량 조합이 동사의 정밀의료 및 그린바이오 사업 전개에 핵심 동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2026.07.22 기준, 발행주식 총수 19,190,021주), 최대주주는 김기욱 대표이사로 2,259,140주(11.77%)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관계자로는 (주)호일바이오테드 1,112,740주(5.80%), 김민이 대표이사 571,714주(2.98%), 김상훈 408,000주(2.13%), 김민호 404,000주(2.11%), (주)진엑스 275,038주(1.43%), EK Health Services Inc 141,400주(0.74%), 김우진 22,000주(0.11%), 최영백 13,368주(0.07%), 김소현 4,040주(0.02%), 신희중 3,000주(0.02%)가 포함된다. 합산 지분율은 27.17%로 경영권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놀루션(225220)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7.),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2026.07),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잠재주식: (주)호일바이오휴메드 보유 1,112,740주를 김기옥 대표이사가 장외매수할 예정이며, 완료 시 김기옥 단독 보유 주식 수는 3,371,880주(17.57%)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사업 분야

그림 3. 동사 주요 사업범위



자료: 동사 IR자료

동사는 정밀의료 사업(핵산추출 장비·시약)과 그린바이오 사업(RNA 기반 동물용의약품·작물보호제)을 영위하고 있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매출유형	품목	제품 설명
정밀의료 — 핵산추출 시약	STD-HBV-HPV-TB/NTM-RV 추출키트 외	인체 유래 시료(소변·Swab·혈액·객담 등)에서 핵산을 추출하는 전용 시약 개발·제조·판매
정밀의료 — 핵산추출 장비	NX-48N, NX-Duo, NX-Junior, NX-32N 외	시료로부터 RNA/DNA를 자동 추출하는 Nextractor® 시리즈 자동화 장비 제조·판매
dsRNA 합성	dsRNA 합성 서비스	농생물학 분야의 유전자 발현 억제 목적의 dsRNA 대량 합성 서비스
그린바이오	허니가드-R액(동물용의약품), dsRNA 기반 작물보호제 파이프라인	RNAi 기술 기반 꿀벌 질병 유전자 치료제 및 농업 해충·식물바이러스 방제 작물보호제 개발
상품 매출	바이오라드, 비앙블바이오텍 제품 외	판권 계약에 따른 바이오라드 제품 유통 및 자회사 비앙블바이오텍 해외 총판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정밀의료 사업은 동사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 Nextractor® 장비 시리즈와 전용 추출 시약으로 구성된다. 장비 라인업은 NX-Junior(최대 8샘플)부터 NX-Duo(최대 24~96샘플, 30분 내 처리)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동 분자진단 플랫폼 Geno-Xtreme도 양산화 준비 단계에 있다. 핵산추출 시약은 STD·HBV·HPV·TB/NTM·RV 등 다양한 질환 영역의 추출키트로 구성되어 국내외 병원·수탁검사기관에 공급되고 있으며, 장비-시약 결합 구조를 통해 소모품 반복 매출이 창출되는 비즈니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동사는 핵심 원재료인 마그네틱 비드를 자체 개발·제조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허(10-2170388 등)로 보호되는 독자 자성입자 기술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FDA·CE·식약처 신고를 완료한 복수의 장비 모델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일본 프라임테크와 NX-Duo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며 아시아 시장 거점을 확보하였다. NX-Duo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5년 미국 CLIA Lab에 진출하며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정밀의료 사업 매출은 핵산추출 시약이 약 86%를 차지하는 구조로, 시약 중심의 반복 수익 기반이 사업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dsRNA 합성 서비스 사업은 10개국 이상의 대학·국가연구소·기업에 제공하는 dsRNA 합성 서비스 및 관련 제품으로 구성되며, kg 단위 대량 dsRNA 합성 플랫폼을 내재화한 것이 특징이다. 축적된 RNA 합성 역량은 그린바이오 파이프라인의 원료 공급 기반으로 직접 연계된다.

그린바이오 사업은 RNAi 기술을 농업생명 분야에 적용한 동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다. 2024년 6월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 허니가드-R액이 핵심 제품이며, 2026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 조달 채널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꿀벌 노제마병 치료제·꿀벌 응애 방제제·작물보호제(소나무재선충 방제제, 식물바이러스 억제제 등)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EU Horizon 과제 참여를 통해 dsRNA 국제 평가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상품 매출 부문은 바이오라드 판권 계약에 따른 생명과학 장비 유통 및 글로벌 바이오 기업 다카라바이오의 한국 법인인 다카라코리아바이오메디칼의 대전 및 충청 지역 대리점 계약을 통해 관공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다카라의 전 제품군 공급과 자회사 비앙블바이오텍의 해외 총판 대리점 계약으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매출 보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I. 시장 동향

핵산추출·정제 글로벌 시장, 10.1% CAGR 고성장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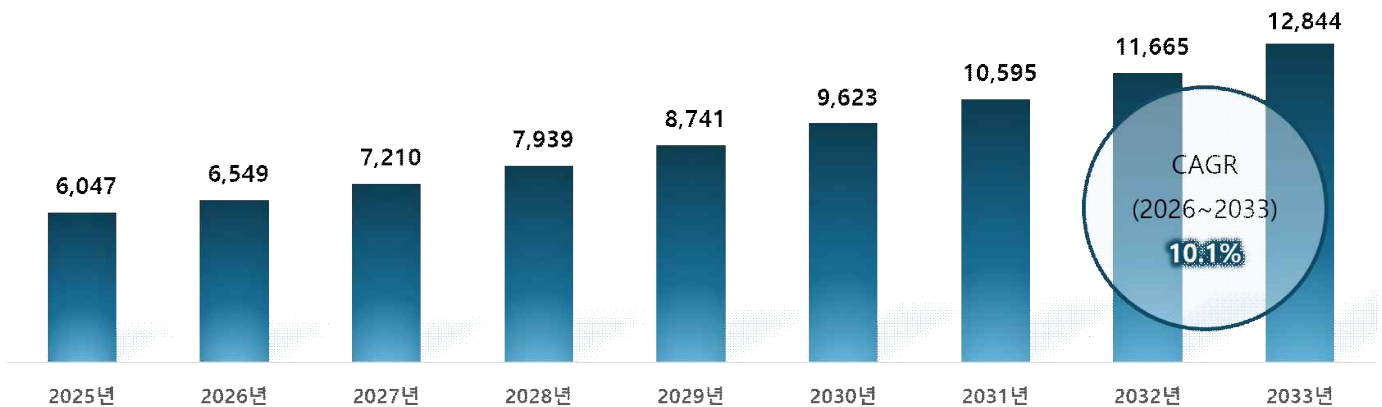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핵산추출·정제 시장은 2026년 65억 달러에서 2033년 128억 달러로 연평균(2026년~2033년) 10.1%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2033년까지 연평균 10.2% 성장이 예상되는 고성장 시장으로 확인된다.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핵산추출·정제 시장의 2025년 시장 규모는 60억 5천만 달러였으며, 2026년 부터 연평균 10.1%씩 증가하여 2033년에는 128억 4천만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3년 글로벌 목표시장의 규모는 약 1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글로벌 핵산추출·정제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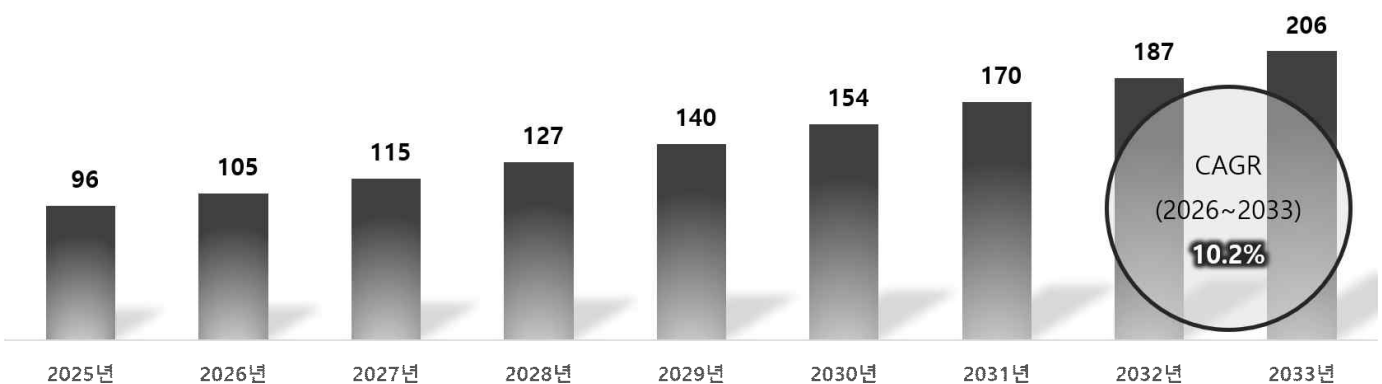


자료: Grand View Research(202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또한 국내 핵산추출·정제 시장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10.2%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33년 국내 목표시장의 규모는 약 2억 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국내 핵산추출·정제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Grand View Research(2026),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국내 핵산추출 시장은 체외진단(IVD)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형 수탁검사기관·대학병원·정부연구기관 등이 주요 수요처를 형성하고 있다. COVID-19 이후 분자진단 역량이 국가 방역 인프라의 핵심으로 인식되면서 자동화 핵산추출 장비에 대한 공공 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관련 장비·시약의 국산화 및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의료(정밀의료)의 확산으로 NGS 기반 검사, 액체 생검, 멀티오믹스 분석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순도·고효율 핵산 추출 기술에 대한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마그네틱 비드 기반 추출 기술이 주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처리 속도와 자동화 수준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로슈(Roche), 퀴아젠(QIAGEN)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처리 속도·비용·사용 편의성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국내외 전문 기업들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구 증가, 방역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평가되며, 현지화 전략과 대리점 네트워크 확충이 주요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엑소솜·cfDNA 등 액체 생검 기반 바이오마커 분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어, 핵산추출 기술의 적용 범위가 기존 감염병 진단에서 암·만성질환 정밀진단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트렌드는 동사와 같이 다양한 질환 영역 대응 장비 및 시약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핵산추출 시장은 기기와 전용 소모품(시약·키트)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장비-시약 결합(Razor-and-blade) 구조가 시장 표준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초기 장비 설치 이후 전용 시약의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QIAGEN, 로슈,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등이 장비·시약 통합 플랫폼을 앞세워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글로벌 유통망을 기반으로 병원·검사기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동사를 포함한 국내 전문 기업들이 처리 속도 및 비용 경쟁력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아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구도로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공공 조달 채널 확보 여부가 국내 점유율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증 규제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기존 FDA·CE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신규 고객 획득에서 구조적 우위를 갖는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주)바이오니아	• ExiPrep 16-48-96 계열 자동 핵산추출장비와 전용 DNA/RNA 추출키트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핵산추출 전문기업. 대형 수탁검사기관 및 병원 주요 고객.
(주)진올바이오테크놀로지	• AllEx Mini 등 자동 핵산추출시스템과 DNA-RNA 정제키트를 공급. 연구소·병원 시장 중심으로 장비-소모품 일체형 공급 구조 운영.
(주)어큐진	• AccuFAST 자동 핵산추출장비와 AccuFASTprep 추출키트를 공급하여 장비-소모품 결합 비즈니스 모델 채택.

자료: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I.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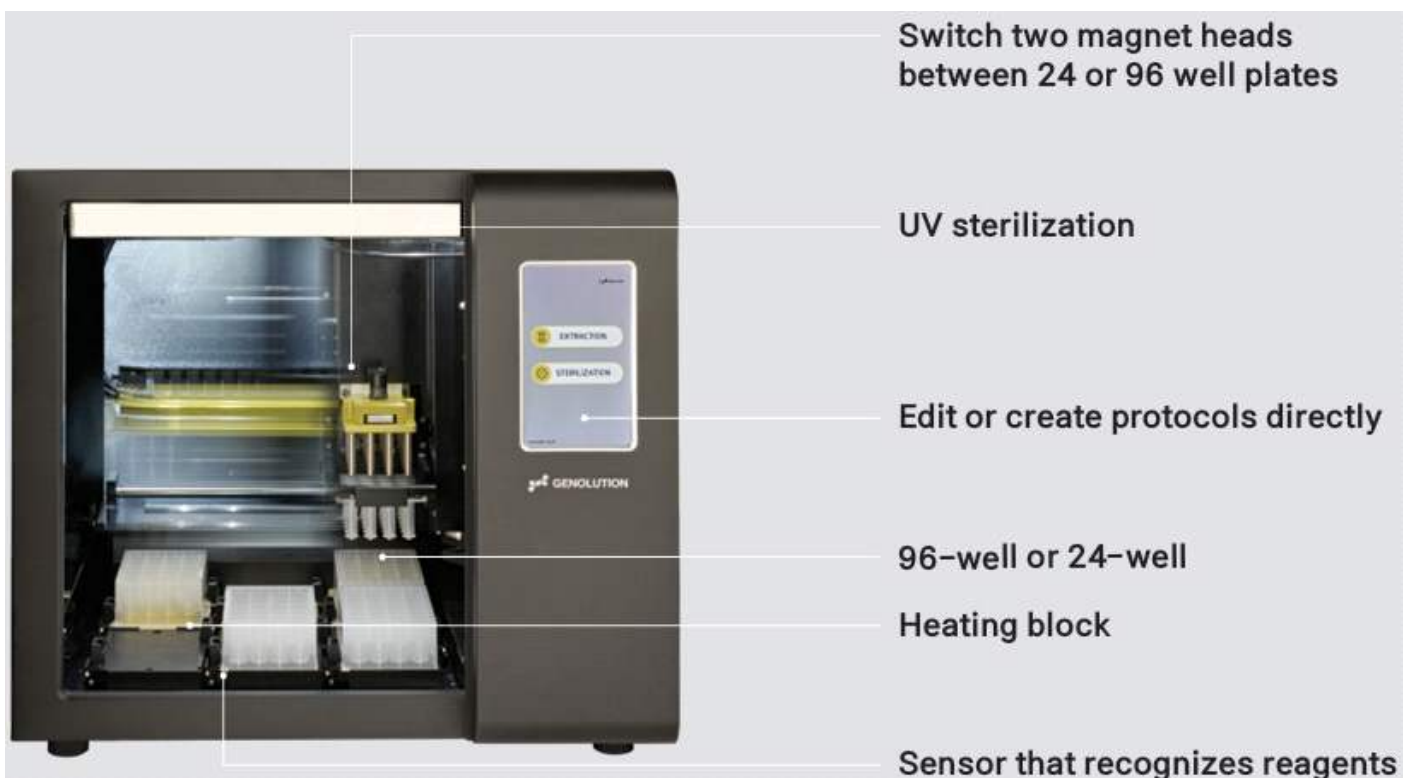
독자 자성입자 원천기술과 세계 최초 RNAi 의약품 허가로 이중 기술 경쟁력 확보

동사는 핵산추출 핵심 원료인 마그네틱 비드를 자체 개발하여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RNA 간섭 기술의 상업화를 세계 최초로 실현한 동물용의약품 허가 RNAi 분야 기술 선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 마그네틱 비드 기반 핵산추출 원천 기술

동사의 핵산추출 기술의 핵심은 실리카 코팅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한 고속 자성 분리 방식이다. 비드가 시료 내 핵산과 결합한 후 자기력으로 분리·세척하는 방식은 기존 원심분리·컬럼 방식 대비 처리 속도와 순도 면에서 우위를 나타낸다. 동사는 이 핵심 원료인 마그네틱 비드를 자체 개발·제조하며 특허 10-2170388(마그네틱 비드의 제조방법 및 분리방법)로 보호하고 있다. 자체 생산된 마그네틱 비드는 STD·HBV·HPV·TB/NTM·cfDNA 추출 키트 4종 이상에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원재료 외부 의존도를 축소하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별도로 바이러스 농축용 자성입자와 NGS 라이브러리 준비에 특화된 자성입자를 개발하여 적용 범위를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핵산 추출 장치용 교반 로드 어레이 및 멀티 웰 카트리지 특허 10-2864139를 통해 소모품 구조 혁신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핵산 포획용 자성 입자 특허 10-2505472는 고선택성 핵산 포획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원천 기술로 기능하고 있으며, 자체 원료부터 완성 시약까지의 수직 통합 구조가 원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6. Nextractor® NX-Duo 상세구조



자료: NX-Duo 브로슈어

제놀루션(225220)

■ Nextractor® 자동화 플랫폼 및 분자진단 장비 기술

Nextractor® 장비 시리즈는 독자 설계된 마그네틱 로드와 캡 홀더 구동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다. 특허 10-2258937(핵산 추출 장치 및 구동 제어 방법)과 특허 10-2443820(핵산추출장치) 등을 통해 장비 구조와 제어 방식에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NX-Duo는 24 또는 96샘플을 30분 이내에 동시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미국 FDA·유럽 CE·한국 식약처 신고를 완료하고 미국 CLIA Lab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 NX-Duo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6년 일본 프라임테크와의 독점 유통 계약 체결로 아시아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였다. 전자동 액체처리 플랫폼 Geno-Xtreme은 검체 투입부터 PCR 준비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차세대 분자진단 장비로 양산화 준비 단계에 있으며, 검체처리장치 특허 10-2635366, 10-2635367을 통해 핵심 구조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핵산 추출 단일 카트리지 특허 10-2159583, 핵산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추출장치 특허 10-2526182 등도 장비 플랫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특허군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핵산추출장치 및 캡 관련 특허 10-2620858, 10-2727380으로 구조적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

그림 7. Nextractor® NX-Duo 상세정보

Nextractor NX-Duo IVD RUO

Nextractor NX-Duo는 30분 안에 최대 24 또는 96 샘플을 한번에 추출하는 핵산추출장비로 추출시간과 비용은 절감하고 효율성은 높은 핵산추출에 최적화 된 장비입니다.

Specification

전자동화 추출 시스템

Walk away system

대용량 고효율

30분 안에 24 또는 최대 96 샘플에서 핵산 추출 가능

시약 플레이트 종류

24 또는 96개의 샘플 사용이 가능한 Well plate
*24 시약 Plate 의 경우 cfDNA 추출가능

크기 & 무게

W x H x D : 560 x 577 x 530 mm
55 kg

안전성

UV멸균
도어 센서
Plate 및 팁(Tip Comb) 위치센서

7인치 Touch Screen UI

미리 입력된 프로토콜 및 사용자 지정 프로토콜 사용가능

Certification

CE-IVDR, FDA
IVD/RUO

식약처 신고

신고번호: 체외 진단 22-1319호
업허가번호: 체외 제 4241호
명칭: Nextractor NX-Duo
품목명: 핵산추출장치 (1등급)
사용목적: 인체유래 검체에서 분자진단을 위하여 핵산(DNA, RNA)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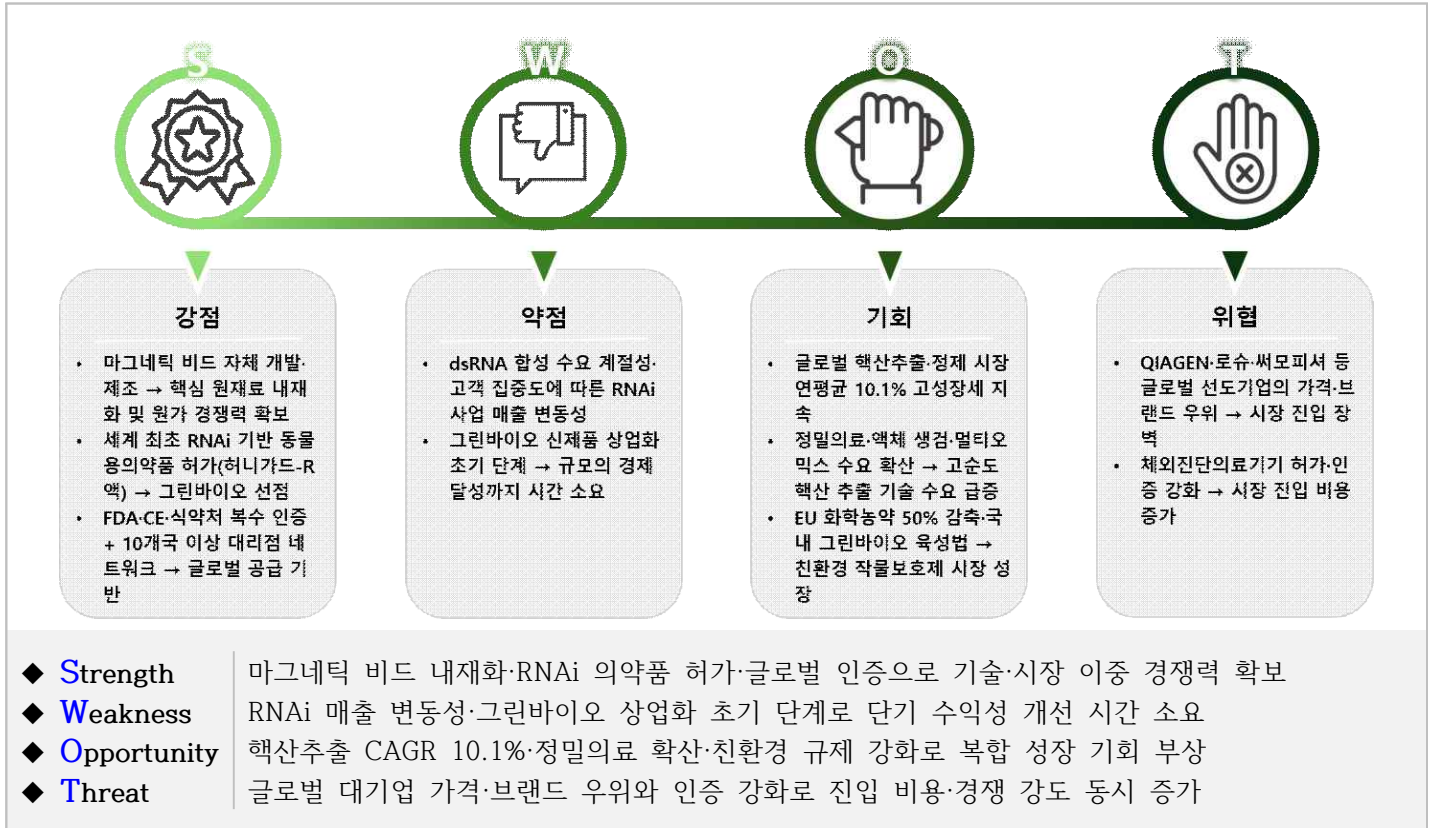


자료: 동사 홈페이지

■ dsRNA 대량 합성 및 RNAi 기반 그린바이오 기술

동사는 long dsRNA mg에서 kg 단위까지의 대량 합성 및 정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10개국 이상의 대학·국가연구소 및 기업에 합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RNA 간섭(RNAi) 원리를 활용한 동물용의약품 개발의 기반이 되었으며, 2024년 6월 허니가드-R액 품목허가로 결실을 맺었다. 허니가드-R액은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dsRNA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 RNAi 기반 동물용의약품 정식 허가 사례이다. 그린바이오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 유전자 발현 억제용 dsRNA 및 방제용 조성물 특허(10-2959238)와 꿀벌 유충 사육 시스템 특허(10-2974381)를 확보하였으며, 노제마병 예방·치료용 조성물, 좁은가슴잎벌레 방제용 조성물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하여, 꿀벌 질병에서 해충·식물바이러스·산림 방제로 RN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SWOT 분석



PEST 분석



IV. 재무분석

분자진단 수요 회복으로 2025년 매출 94.0억 원, 자기자본비율 72.4%의 재무 안정성 유지

동사의 2025년 매출액은 분자진단 수요 회복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한 94.0억 원, 영업손실 86.4억 원, 당기순손실 125.9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24.9억 원, 영업손실 13.8억 원, 당기순이익 4.4억 원(외환 관련 이익 기인)을 시현하였다.

■ 엔데믹 이후, 분자진단 수요 회복 및 장비 수출 확대로 매출 증가 기대

동사의 매출은 핵산추출 시약·장비 중심의 정밀의료 사업과 RNAi·그린바이오 사업, 뷰티 사업, 바이오라드 판권 등 상품 판매로 구성된다.

동사의 매출액은 COVID-19 특수이 정점을 이룬 2021년 728.3억 원에서 엔데믹 전환에 따라 2022년 380.8억 원, 2023년 97.6억 원, 2024년 71.4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2025년에는 분자진단 수요 회복으로 94.0억 원으로 반등하였고 2026년 1분기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일회성 특수 수요의 기저 조정이 일단락되고 진단 수요 상시화와 장비 수출 확대, 국내 양봉 농가 공급이 본격화된 허니가드-R액의 신규 매출 편입이 외형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영업이익률 2024년 저점 이후 개선 흐름, 고정비 흡수로 수익성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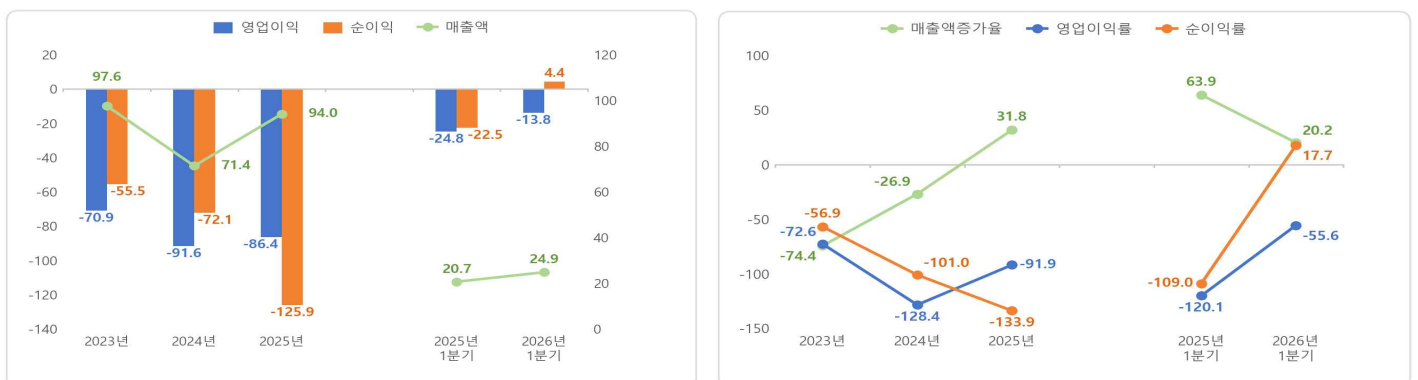
2025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7억 원 증가한 94.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손실은 5.2억 원 축소된 86.4억 원으로 손실 규모와 손실률이 모두 개선되었으나, 당기순손실은 53.8억 원 확대된 125.9억 원을 나타내었다.

2026년 1분기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억 원 증가한 24.9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영업손실은 11.0억 원 축소된 13.8억 원으로 개선되었고, 당기순이익은 26.9억 원 증가한 4.4억 원으로 흑자 전환되었다.

영업손실은 매출이 COVID-19 특수 이전 수준을 밑도는 가운데 고정비 성격의 판매비와관리비를 아직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률은 2024년 -128.4%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25년 -91.9%, 2026년 1분기 -55.6%로 2개 기간 연속 개선되고 있어 매출 회복에 따른 고정비 흡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8.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제놀루션(225220)

■ 부채비율 30%, 자기자본비율 72.4%의 자본이 자산의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우량 재무구조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69.9억 원 감소한 1,064.5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2.8억 원 증가한 260.6억 원, 자본총계는 72.6억 원 감소한 804.0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157.5%p 상승한 640.4%, 부채비율 3.0%p 상승한 32.4%, 자기자본비율 1.7%p 하락한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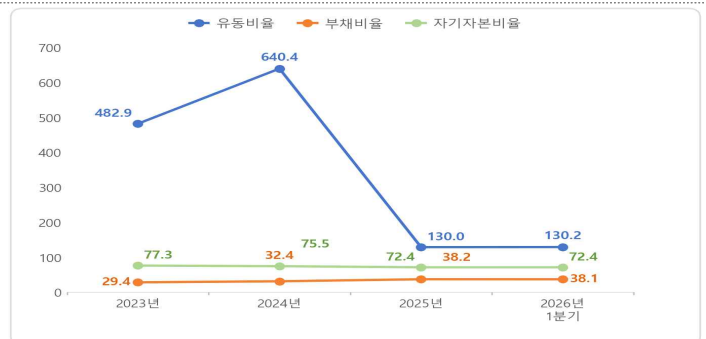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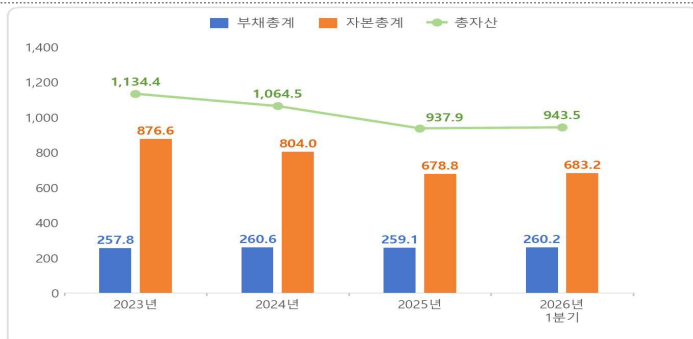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26.7억 원 감소한 937.9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1.5억 원 감소한 259.1억 원, 자본총계는 125.2억 원 감소한 678.8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510.5%p 하락한 130.0%, 부채비율 5.8%p 상승한 38.2%, 자기자본비율 3.1%p 하락한 72.4%).

2026년 1분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100.7억 원 감소한 943.5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260.2억 원, 자본총계는 100.7억 원 감소한 683.2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530.4%p 하락한 130.2%, 부채비율 4.9%p 상승한 38.1%, 자기자본비율 2.7%p 하락한 72.4%).

부채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자기자본비율이 72.4%로 자본이 자산의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무차입 기조에 가까운 재무구조가 손실 국면의 완충 장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97.6	71.4	94.0	20.7	24.9
매출액증가율(%)	-74.4	-26.9	31.8	63.9	20.2
영업이익	-70.9	-91.6	-86.4	-24.8	-13.8
영업이익률(%)	-72.6	-128.4	-91.9	-120.1	-55.6
순이익	-55.5	-72.1	-125.9	-22.5	4.4
순이익률(%)	-56.9	-101.0	-133.9	-109.0	17.7
부채총계	257.8	260.6	259.1	260.2	260.2
자본총계	876.6	804.0	678.8	783.9	683.2
총자산	1,134.4	1,064.5	937.9	1,044.2	943.5
유동비율(%)	482.9	640.4	130.0	660.6	130.2
부채비율(%)	29.4	32.4	38.2	33.2	38.1
자기자본비율(%)	77.3	75.5	72.4	75.1	72.4
영업현금흐름	-11.4	-14.3	-70.1	-26.3	-6.9
투자현금흐름	-70.8	256.9	-58.6	-1.1	-2.3
재무현금흐름	71.6	3.7	-1.2	1.4	-0.7
기말 현금	60.8	321.7	188.0	301.7	182.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동물용의약품 허니가드-R액은 세계 최초의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치료제로, 2024년 6월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판매를 위한 조달 등록 절차를 거쳐 2026년 1분기 보고서 기준 국내 양봉 농가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애벌레가 녹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며 그동안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던 만큼, 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의 상용화는 양봉 방역의 미충족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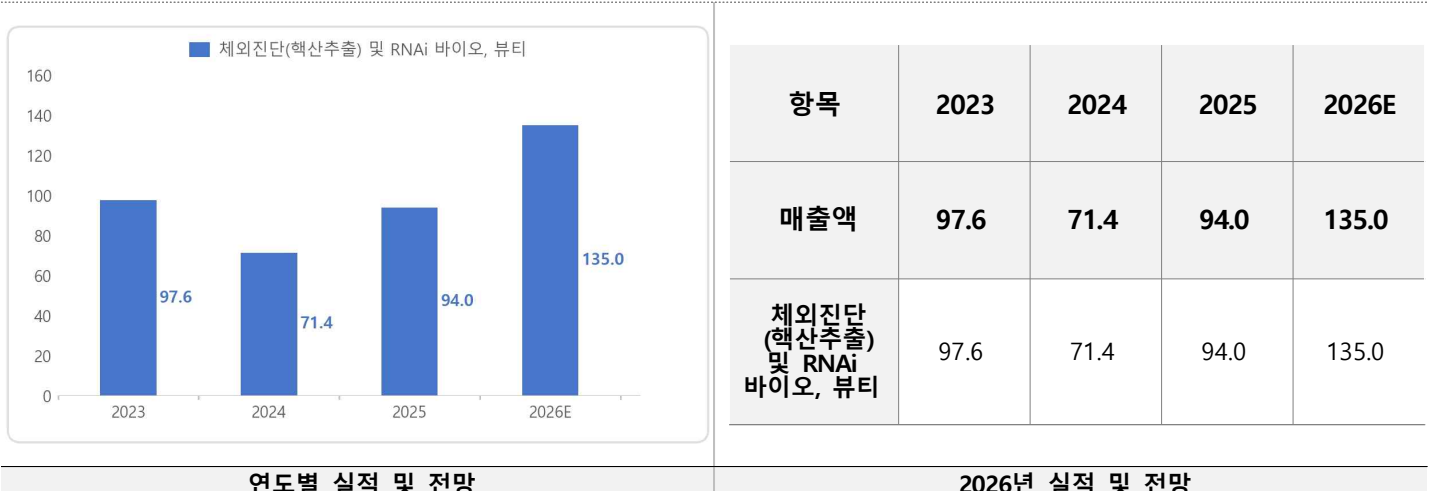
국가 방역사업이 지원하는 꿀벌 질병 3종 중 하나인 노제마병 치료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국책과제로 개발되고 있고, 좁은가슴잎벌레·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dsRNA 작물보호제도 특허 출원을 마치는 등 후속 파이프라인이 국책과제를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허니가드-R액은 기존 화학·항생제 중심 방역 제품과 차별화 되는 친환경 동물용의약품으로 낭충봉아부패병을 대상으로 한 전용 의약품이 제한적이었던 양봉 방역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신규 유전자치료제의 상용화가 진단 중심 사업 구조에 신규 매출원을 더하는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다.

동사의 실적은 정상화된 분자진단 수요의 회복 속도와 그린바이오 신제품 상용화 시점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드라이버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확정된 성장 기반으로는 2024년 6월 품목허가 획득 후 국내 양봉 농가 공급이 본격화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허니가드-R액과, 미국 CLIA Lab 진출을 완료한 NX-Duo의 수출 확대가 자리하며, 진행 중인 기반으로는 노제마병 치료제·응애방제제·dsRNA 작물보호제 등 국책과제 파이프라인이 뒤를 잇는다. 시장 측면에서는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이 2034년까지 연평균 6.5%(Fortune Business Insights), 핵산 분리·정제 시장이 2031년까지 연평균 8.7%(MarketsandMarkets)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단 검사 확대에 동반되는 시약·장비 수요가 외형 회복의 구조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판매관리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8.51억 원 감소하여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1분기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은 이러한 외형·비용 측면의 개선과 함께 외환손익 및 금융자산 평가이익 등 영업외수익 확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매출 성장 및 비용 절감 흐름이 이어질 경우, 2분기에도 순이익은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0.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연도별 실적 및 전망

2026년 실적 및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및 추정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Nextractor® 일본 진출·허니가드-R액 조달·파이프라인 확장으로 성장 모멘텀 강화

동사는 2026년 NX-Duo 일본 독점 유통 계약 체결, 허니가드-R액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소나무재선충 RNA 방제 특허 확보 등을 연이어 달성하였으며, 전자동 분자진단 플랫폼 Geno-Xtreme 양산화 및 아시아 방역 시장 공략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핵산추출 플랫폼 글로벌 사업 확대

동사는 2026년 2월 일본 프라임테크와 NX-Duo의 일본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며 아시아 핵심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2026년 3월에는 태국 방콕 Health & Nutrition Asia 2026에 참가해 NX-48N·NX-Duo 기반 축산 방역 분자진단 워크플로우와 허니가드-R액을 소개하며 글로벌 방역 시장 내 입지 확대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NX-Duo의 민감도는 글로벌 주요 경쟁사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기술 신뢰도를 기반으로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자동 분자진단 플랫폼 Geno-Xtreme의 양산화 준비가 완료된 상황으로, 본격 출시 시 기존 Nextractor® 시리즈와의 시너지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와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바이오 파이프라인 상업화 가속

허니가드-R액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을 완료하고 조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으로, 공공 조달 채널을 통한 초기 매출 발생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4월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dsRNA 특허(10-2959238) 확보로 꿀벌·해충·식물바이러스에 이어 산림 방제로 RNAi 플랫폼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노제마병 치료제·응애 방제제·작물보호제 등이 단계적 임상·효능시험을 거쳐 상업화될 경우 복수의 RNAi 기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그린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EU Horizon 과제를 통한 dsRNA 국제 평가 체계 구축 참여는 향후 유럽 시장 진출 시 규제 대응 역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정밀의료 서비스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 현황

동사는 2025년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을 획득하고 고려대학교병원과 자궁경부암 멀티오믹스 기반 바이오마커 발굴 임상 연구를 공동 수행하는 등 핵산추출 플랫폼을 기반으로 질병 바이오마커 발굴 등을 통한 정밀의료 서비스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엑소좀 자동 분리·하수 기반 감염성 병원체 감시·NGS 기반 배양육 QC 분석·양자바이오 센싱 실증 등 차세대 국책과제를 통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단일 장비·시약 공급에서 서비스·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임상 연구 결과와 플랫폼 상용화 여부가 향후 기업가치 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마곡사옥 매각 추진 및 송도 중심 거점 재편

동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사옥 매각을 추진 중이다. 마곡사옥은 2017년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후 2020년 코스닥 상장 공모자금을 투입해 완성한 핵심 R&D 거점으로, 분기보고서상 현재도 동사 본점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2024년 송도 제2사옥 완공 이후 송도 R&D센터는 분자진단·정밀의료, 마곡 연구소는 그린바이오·RNA 거점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송도사옥 내 마곡 흡수 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예상 거래금액은 250억원 안팎으로, 10월 전매제한 해제에 맞춰 거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매각 대금은 송도사옥 대출금 상환, M&A, 운영자금에 활용할 계획이며, 이번 매각은 송도 중심 단일 거점 전환을 통한 운영 효율화와 유동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제놀루션(22522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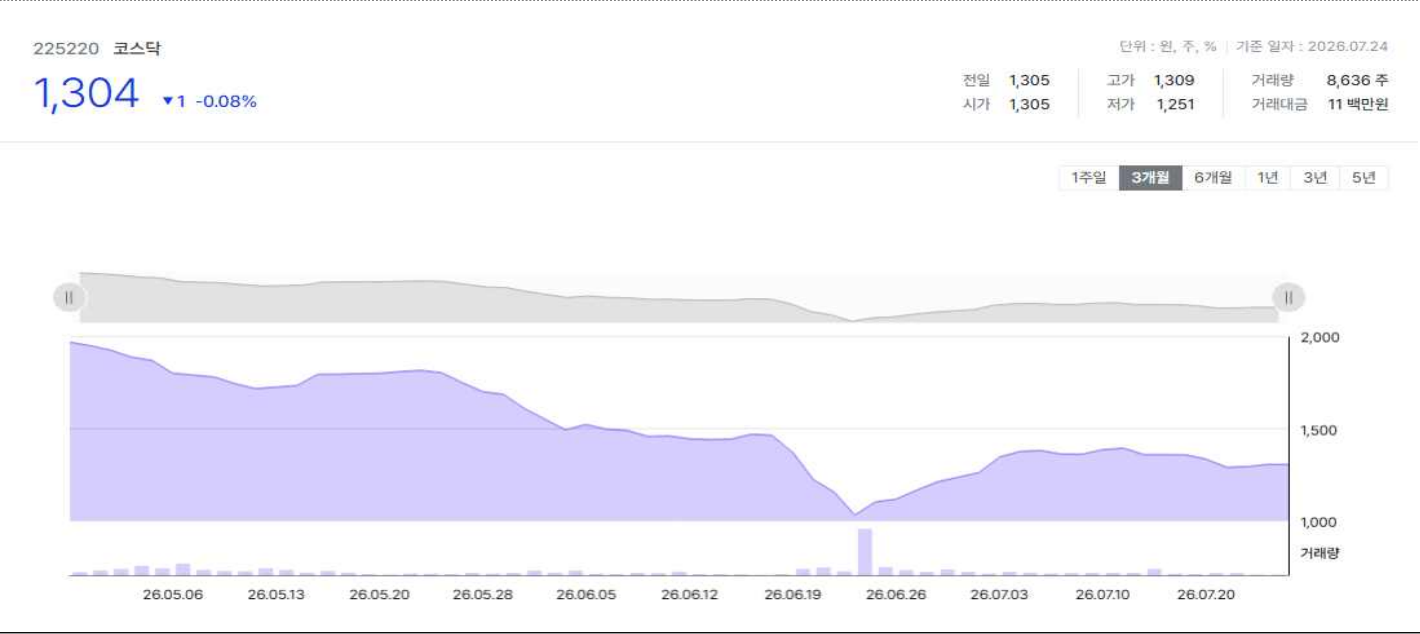
“제놀루션은 최근 세계 최초의 꿀벌 유전자 치료제인 '허니가드-R액'의 혁신제품 지정과 친환경 RNA 작물보호제 국제 출원을 필두로 그린바이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신규 성장 기반을 확보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보전 트렌드와 친환경 바이오 방제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동물용 의약품 및 생물농약 분야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

* 자료 : Gemini

증권사 투자 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07.2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제놀루션	X	X	X